

타이어, 천연고무 급락으로 “희비”

한국타이어 영업 호조에 넥센 약화 ... 천연고무 2000달러 수준 하락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와 넥센타이어(대표 이현봉)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.

글로벌 천연고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영업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.

한국타이어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.3% 증가한 2713억원, 영업이익률은 14.5%로 1.3%포인트 상승했다.

반면, 넥센타이어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14.7% 감소한 458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률도 10.2%로 1.9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타이어 제조코스트의 2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고무 가격이 2013년 초 톤당 3000달러를 웃돌았으나 7월 20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.

시장에서는 천연고무 가격 급락으로 2/4분기 이익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점쳤으나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.

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9000만~1억개 생산하고 있는 반면, 넥센타이어는 3000만~4000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, 해외공장 증설로 재고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기존 생산량이 많은 한국타이어가 재고 소화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타이어 관계자는 “2/4분기는 양사가 증설공장 생산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기”라며 “넥센타이어는 재고 압박이 상대적으로 클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넥센타이어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, 중국, 유럽 등 고른 판매망을 갖춘 점 역시 재고부담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.

넥센타이어 관계자는 “추가 생산물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”이라며 “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신차타이어(OE) 관련 연구비와 스포츠마케팅 가동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머니투데이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12>